불안한 자전거 통학

광주 청소년들 등·하굣길 이용자 급증 불구

전용도로 미비·보행자 방해 '곡예운전' 일쑤

■광주지역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자전거 관련 사고

년·월	1	2	3	4	5	6	7	8	계
2011	0	4(4)	5(5)	9(10)	11(12)	14(14)	12(12)	13(14)	68(71)
2012	3(3)	7(7)	7(7)	14(16)	25(26)	24(25)	11(11)	9(10)	100(105)

※ 광주경찰청 제공자료, ( )안은 사상자 수

광주시 광산구 모 중학교에 다니는 정모(15)군은 며칠 전 자전거를 구입해 등·하교를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유행인 데다, 버스로 통학하기엔 너무 혼잡해 차를 놓치기 일쑤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왕복 4~7㎞를 다녀야 하는 통학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데다 보행자도 많아 매일 같이 곡예운전을 해야하는 등 학교 가는 길이 불안하다.

최근 들어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인도와 함께 운용되다 보니 일부 도로로 주행하고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들과 늘상 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위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발생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건거 관련 교통사고는 총 100건으로 지난해 68건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을 가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천모(14)군은 "자전거 도로가 있긴 하나 장애물들이 많아 도로로 달리게 된다"며 "이동하는 내내 사고가 날까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오후 4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모(13)군이 지나던 택시에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에는 신가동 광주은행 앞 4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이모(16)군이 엑티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또 지난 2월 24일 광산구 장수동 남광농원 앞 도로에서는 박모(15)군이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부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녀가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김모(여·43) 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 놓고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루종일 걱정"이라며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데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선 중학교의 한 관계자도 "자전거 타기가 유행처럼 번지지만 학교나 교육당국의 안전운행 여건 조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주변이라도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갖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선 중 한 차선을 없애야 하는데 차량 통행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구별로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지대운(왼쪽) 광주지방법원장이 3일 오전 광주지법 중회의실에서 허정 에덴병원 원장에게 시민사법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을 건네고 있다. 이날 광주고등·지방·가정법원은 외부 전문가 17명 등 모두 26명을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총장에 서재홍 교수

이사회 만장일치 선출

조선대학교 서재홍(63·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사진)교수가 제15대 총장에 선출됐다.

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강현욱)는 3일 오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거에서 271표를 얻어 1위 득표한 서재홍 후보를 제15대 총장, 2위 득표한 강동완 후보(58·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를 부총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서재홍 신임총장은 "조선대는 지난 1년 동안 혼란과 분열을 겪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평온한 선거를 치러낸 구성원들의 민주적 역량에 경의를 표하고, 대학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지켜봐 주신 지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15대 총장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4년이다.

서 신임총장은 조선대에서 의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조선대 의학연구소장·교수평의회 의장·보건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두루 거쳤고, 미국 텍사스대학 앤더슨 암센터 교환교수, 대한병리학회장,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조직위원을 역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참교육학부모회 등 광주 시민사회단체

'학폭' 학생부 기재 반발 천막 농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제도'에 대해 인권적·교육적 측면에서 큰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차례 장휘국 시교육감 면담, 릴레이 1인시위 등을 통해 이 제도의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운을 떼자마자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핵심대상인 고3학생과 전출학생만큼은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민 76% "학생들 더불어 사는 능력 낮다"

고민 상담 대상자 친구 43%·선생님 2.8%

교과부 8만여명 설문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23일부터 한 달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교과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한 인성교육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신뢰, 협력, 참여 등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을 묻자 75.6%가 '낮다'(58.0%) 또는 '매우 낮다'(17.6%)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 등 설문조사에는 8만3608명이 참여했다.

교과부는 7월6일부터 19일간 전국 500개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5만79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성교육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62%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학생은 53.7%, 학부모는 64.2%, 교사는 80.3%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52.9%), '전혀 아니다'(7.5%)등 60.4%가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상담하는 대상은 학생 중 43.1%가 친구를 꼽았다. 부모와 의논한다는 학생은 30.1%였고 혼자 고민한다는 답도 18.2%나 됐다. 교사를 상담 상대로 택한 학생은 2.8%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뜸 06시 07분 / 해짐 18시 55분 / 달뜸 20시 39분 / 달짐 09시 29분

오후부터 가을비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1/28℃
목 포	흐리고 비	21/27℃
여 수	흐리고 비	23/27℃
나 주	흐리고 비	20/28℃
완 도	흐리고 비	20/28℃
구 례	흐리고 비	19/28℃
강 진	흐리고 비	19/27℃
해 남	흐리고 비	19/28℃
장 흥	흐리고 비	19/27℃
순 천	흐리고 비	18/27℃
영 광	흐리고 비	20/29℃
진 도	흐리고 비	20/27℃
전 주	흐리고 비	21/29℃
군 산	흐리고 비	21/27℃
남 원	흐리고 비	18/29℃
흑산도	흐리고 비	22/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동~남	1.0~1.5m

	밀물	썰물
목포	04:14 16:39	09:22 21:42
여수	11:00 23:03	04:40 16: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최저/최고	22/26	21/29	22/28	21/29	21/28	22/27

광주·전남 하순부터 본격 가을날씨

광주·전남지역은 이달 하순부터 완연한 가을날씨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1개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하순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순에는 기온이 평년(21~22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49~70㎜)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평년(31~46㎜)보다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다음달부터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4일 광주·전남지역은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에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5일까지 이어지겠다. 강수량은 20~50㎜로 예상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강릉 軍전투기 소음피해 56억 손해배상 판결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군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강원도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5241명이 "소음 탓에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배상액은 56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강릉 공군비행장 근처에 사는 조씨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문제도 나타났다며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광산구 사회적기업 아름손

Together 광산 GWANGSAN

우리 광산구의 사회적기업을 애용해주세요!

우리사회의 빈 곳을 채움으로써 세상을 기분 좋게 하는 고마운 기업입니다.

구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재화 및 서비스
마을기업	(주)희망새다	광산구 사암로 215번길 85(우산동)	062-956-6587	-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우리밀 국수집
	농업회사법인(주)맛가람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쌍암동)	062-974-0200	- '건강365 맛가람' 꾸러미 배송
	광주시민 서포터즈	광산구 신창로 105번길 34(신창동)	062-954-5025	- '건강한 밥상' 식당 - 오리, 돼지고기 훈제, 굴국밥 등
	울금영농 조합법인	광산구 용진로 384(남산동)	062-944-8151	- 몸에 좋은 울금환, 가루, 엑기스
	(주)빛고을 자연과사람	광산구 평동금곡길 2(연산동)	062-944-0998	- '햇살가득 우리농산물 꾸러미'
	구룡촌 영농조합법인	광산구 본량구룡길 45(동림동)	070-8828-2103	- 특화상품(메주, 죽염된장) 판매 -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연그린 영농조합법인	광산구 임곡로 599(안청동)	062-961-8282	- 고구마재배 - 장류(메주, 된장, 간장)제조 판매
	기능성머쉬 영농조합법인	광산구 기곡길 124-24(용곡동)	062-943-3386	- 가정용 기능성 버섯 재배 및 판매
인큐베이팅	산내들 생약초회	광산구 목련로 339-19(신가동)	062-961-0084	- 관상용, 식용 산야초 재배 및 기술보급
	청소년 폭력예방단	광산구 장신로 44(장덕동)	062-521-1318	- 학교폭력예방 교육지원 센터 운영
인증사회적기업	(사)해피웨이	광산구 신창로 40(신창동)	062-959-9011	- 노인돌보미, 간호학원 - 플라스틱 재활용
	엠마우스산업	광산구 용아로 808(안청동)	062-951-6920	- 화장지·양초 - 폐가전,사무기기 수거
	광주YMCA 아가야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50(우산동)	062-613-7180	- 시간제 영유아 돌봄서비스 - 체험학습 강사 파견
	시니어월드	광산구 송도로 158(도산동)	062-942-8208	- 방문요양, 노인돌봄 서비스 - 반찬 도시락, 푸드뱅크사업
	광주YWCA 드림헬퍼사업단	광산구 수등로 248(신가동)	062-526-3336	-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 노인돌보미

구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재화 및 서비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엠마우스 보호작업장	광산구 월곡로 71번길 9(월곡동)	062-955-7738	- 도자기(화분,머그컵,오카리나) - 천연염색(손수건,속옷,방석,베개)
	바오로일터	광산구 노안삼도로 1311(삼거동)	062-943-3068	- 천연재료 영양어묵 - 부품조립(하청)
	(주)희망을여는 사람들	광산구 북문대로 420번길 150(신창동)	062-952-5595	- 플라스틱 재활용
	썬티팜 영농조합법인	광산구 상무대로 176(송정동)	062-942-3226	- 황룡강/영산강 경관조성사업(해바라기 등) - 해바라기 오일 등 관련제품 생산판매
	대한무공수훈자회 바이로컬사업단	광산구 송도로 202(도산동)	062-431-8310	- 아파트단지 순회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광산지부	광산구 광산로 67번길 6(송정동)	062-945-8568	- 커피전문점 및 자전거 수리
	(사)한국장애인평생학습원	광산구 첨단내촌로 41(월계동)	062-953-0017	- 편백나무 관련 생산 판매(베개, 비누)
	(사)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광산구 내등길 1(등임동)	062-959-0981	- 취약계층을 위한 철학·인문학 교육
	(사)아이티케어 복지회	광산구 신야촌길 237(신촌동)	062-943-7896	- 전자제품 재활용 수리·판매 - 레이저실크 인쇄(그릇 등)
	(주)대율	광산구 왕버들로 265번길 7(신창동)	062-945-3650	- 건물 종합관리, 청소·경비용역 - 아동·청소년 안전귀가 사업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광산구 평동로 790(옥동)	070-7502-6797	- 다문화카페를 통한 수공예품 및 음료 판매
	(주)더불어락	광산구 월곡반월로 66(월곡동)	062-655-5563	- 월곡시장 내 먹을거리 식당 - 북카페 운영
	큰사람교육 KG교육문화사업단	광산구 첨단 중앙로 167(월계동)	062-973-6047	- 교사&에듀 컨설턴트 파견업 - 영어캠프 시행사업
	디와이테크	광산구 평동산단 6번로 11(월전동)	062-959-3100	- 전기 및 전자부품 제조
	크린코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 32(신가동)	062-952-2491	- 천정형시스템에어컨 화학세척 및 향균탈취 서비스